

보험관련기관의 품질 인증제도 활용

소방용품등 화재, 안전관련제품의 품질인증은 그 목적이 소비자를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조자 및 각종 재해사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보험회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품질의 직접확인이 불가하므로 공정성이 확보된 공인시험연구기관의 품질인증을 필요로 하며, 제조자는 자사가 생산한 양질의 제품이 품질인증을 획득 하므로써 소비자의 신뢰성과 판매경쟁력을 확보하여 사업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에 있어서는 우수제품의 사용이 재해예방 및 손실경감을 유도하여 경영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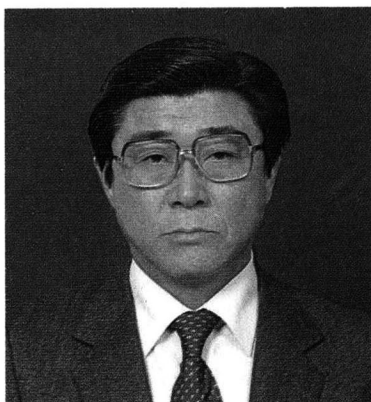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방용품의 품질인증 실태를 살펴보면, 인명의 안전이나 재해예방 측면에서 제품이 갖추어야 하는 최저한계를 설정한 국가법령에 의거하여 단일기관에서 국가인증(검정)이 행하여 지고 있다.

따라서 소방업계는 영세한 제조업체가 무수히 난립하여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과잉 생산하여 품질경쟁보다는 가격경쟁에 의한 현상유지에 급급하므로써,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어 심도있는 기술개발과 제품의 품질관리능력 부족으로 급변하는 선진기술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시설은 소방용품보다 훨씬 고도의 제조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타의 산업 부문에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이 활발한 반면에 유독 소방용품만은 독창적인 제품개발이 전혀 없고, 수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잘 증명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설혹 양질의 제품이 개발되었다 할지라도 소방설비공사는 대부분이 건물 시공업체의 하도급에 의해 행하여지기 때문에 시설단가가 높은 이들 제품은 기피되고 있으며, 법적 요구사항에만 만족되는 가격이 싼 제품이 선택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치된 소방시설은 사용시에 많은 하자를 발생시켜 관리에 많은 비용을



李 裕 龍
〈방재시험소 소장〉

필요로 하므로 건물소유자 또는 경영자의 불신을 유발시켜 보수 및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여 유사시에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소비자인 그들 자신과 재해사고보상과 관련이 있는 보험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국가검정등의 규제만으로는 자발적인 소방용품의 품질향상 유도가 어려운 구조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구 외국에서는 각종 재해사고와 이해관계가 있는 보험회사가 소방용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 시험연구기관을 설립 활용하고 있다.

이들 시험기관에서는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의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행하며, 건축주가 동 인증제품을 사용한 경우는 보험계약시 반대급부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단가가 높더라도 우수인증제품이 선호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별도로 국가검정이라는 규제를 하지 않아도 제조자의 품질향상 노력과 우수제품의 확대 보급이 이루어 지고 있어 국가재해방지에 이바지하며,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업계에서도 소방용품의 개발지원 및 기술향상을 위해 전문 시험연구기관인 방재시험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또 시험소에서는 선진외국 기술기준에 버금가는 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우수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행하고 있다.

이들 한차원 높은 품질인증제품의 확대보급이 곧 국가방재기술 향상, 소방업계의 발전, 소비자보호 및 보험사고의 손실경감을 위한 첩경이 될것이기 때문에 국가관계기관은 이들 인증제품에 대해 국가검정을 면제하여 제조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재해예방을 위한 공익 시험연구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보험업계는 이들 인증제품 사용자에게 대한 장려책으로써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여야 할 것이다.